

농촌융복합경영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화 기여 주목

✎ 박유신 기자 | ⌚ 승인 2022.09.07 15:18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1·2·3차 융복합산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경영체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된 78명에 대해 선정 전·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고용, 지역농산물 사용량 등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 8월부터 매달 지역경제 기여도, 창의성, 미래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경영체 1곳을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해 홍보하고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분석 결과 농촌융복합산업인들의 경영체 운영 형태는 농업회사법인(44개), 영농조합법인(21개)이 대다수였으며, 대부분 1·2·3차 융복합산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표자 평균 연령은 56.9세로 50~60대가 68%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하 20.5%, 70대 이상 11.5% 순이었다. 대표자가 귀농·귀촌인인 경우는 39%(30개소)로 귀농·귀촌인의 참여가 활발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8개 경영체를 제외한 70개 경영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영체 당 평균 매출액은 36억2000만 원으로 선정 이전보다 연평균 17% 증가했다.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였으며, 경영체 당 평균 고용인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고용인원 중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경영체는 37%(26개)에서 43%(30개)로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경영체 당 지역농산물 평균 사용량은 453톤(7억1700만 원)으로 선정 이전보다 연평균 25% 증가했으며, 3차 산업 중심 경영체의 평균 방문객은 선정전 4만8000명에서 5만4000명으로 연평균 1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경영체들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